WINTER 2017 **Vol. 81**

또 하나의 나, 우리





‘또 하나의 나, 우리’는
플랜코리아가 전하는
아이들의 소중한 꿈입니다.

플랜은 UN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 기구로
8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국제적 신뢰를 인정받아온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종교 · 정치 · 국적을 초월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1억6천5백만 명의 어린이와 가족 및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보호, 교육, 보건의료, 식수 및 위생,
생계지원, 긴급구호 등의 영역에서 종합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플랜코리아는
플랜인터내셔널의
한국 지부입니다.

CONTENTS

또 하나의 나, 우리 WINTER 2017 Vol. 81

04 Plan Report
소녀, 세상의 중심에 서다

06 우리는 플랜 가족
제5회 플랜코리아 후원자 어워드

10 지구촌을 간다 1
우리가 함께한 순간들을 꼭 기억할게

12 아주 특별한 만남 1
지구촌 아동 돕기 플랜 아트 마켓

14 지구촌을 간다 2
캄보디아 아이들이 마실
깨끗한 물을 선물합니다

16 Plan Board 1
후원아동에게 보내는 꾸러미

18 사랑은 계속됩니다 1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주세요

20 사랑은 계속됩니다 2
아이가 아프면 가족이 모두 아픕니다

22 아주 특별한 만남 2
학교에서 마음껏 꿈꾸고 싶어요

24 지금 만나러 갑니다
배달의 플랜 시즌 2

26 Plan Board 2
캄보디아 드봉크뭄에 찾아온 변화

28 꿈꾸는 아동편지

31 Enjoy Plan

32 Plan News

www.plankorea.or.kr **후원문의** 1544-3222

facebook.com/plan.kr twitter.com/plankorea @플랜코리아 @plankore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H스퀘어 S동 912호 **이메일** kno@plankorea.or.kr

통권 제81호 **발행일** 2017. 12. 15 **발행인** 노영찬 **발행처** 재단법인 플랜 한국위원회
기획 · 편집 서울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그래픽오션 02.3455.5612

세계 여자아이의 날

소녀, 세상의 중심에 서다

10월 11일, UN이 선포한 세계 여자아이의 날을 맞아 지구촌 곳곳에서 플랜인터내셔널이 진행하는 'Take Over'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60개국에서 1,000여 명의 소녀들이 일일 대통령, 총리, 장관, 기업대표, 언론인 등 자신들이 원하는 다양한 역할의 주인공이 되어 여성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양성 평등을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핀란드의 16세 소녀 카타리나는 핀란드 총리의 집무실을 방문하여 그의 역할을 대행했습니다. 각종 뉴스들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환경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성명도 발표했습니다.

덴마크의 마이샤는 의회의원과 장관의 업무들을 체험했습니다. 코펜하겐에 있는 학교에서 150여 명의 학생들과 국제기구와 함께 직접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페루의 소녀 대표단은 사법부, 뉴스 캐스터, 옴부즈맨 등 다양한 위치의 의사결정권자가 되어 보다 폭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동티모르에서는 다섯 명의 소녀들이 일일 마을 이장님으로 변신해 여성 리더로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을 대표한 세 명의 소녀는 재무장관, 수상, 건설부 장관의 주요 직무들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고 베를린에서 정치적, 사회적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17살 소녀 사이마가 데일리스타 신문의 편집자 역할을 대신 수행하였습니다. 사이마는 방글라데시 영자 신문의 여러 부서들과 의견을 나누고,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의 인식 재고 과정에서 미디어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에콰도르에 사는 14세 소녀 가브리엘라는 LataM 항공사에서 비행기 승무원이 되어 짧은 비행에 참여하고, LataM 경영진과의 회의에도 참석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외곽 지역에 사는 20여명의 소녀들이 교육부 장관, 대학 학장, 기업 임원, 정부 요직, 비정부기관 요직 등의 임무들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대부분 남자로만 구성된 사회 주요 보직들을 얼마든지 여자들도 해낼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아이티에서는 청소년 패널이 TV쇼에 출연하여 조혼과 조혼에 따른 임신, 성폭력, 남녀평등 등 그 동안 쉽게 다뤄지지 못했던 주제들을 다루며 여자 아이들의 인권 신장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녀들의 용기 있는 도전은 세계 여자아이의 날 하루에 그치지 않고, 차별과 편견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그 날까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될 것입니다. 소녀들이 더 이상 불평등한 사회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제 우리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개도국의 많은 여자아이들이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차별과 편견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과 불평등은 잠재력을 실현할
희망조차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Take Over' 캠페인을 통해 소녀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의 삶은 물론이고
지역사회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플랜인터내셔널 대표 앤 버지 알브렉센









제5회 플랜코리아 후원자 어워드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매년 따뜻한 마음을 가진 후원자 여러분을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플랜코리아 후원자 어워드가 벌써 5회를 맞이 했습니다.
다섯번째 후원자 어워드는 오상진 홍보대사의 진행으로 총 9개 부문에 걸쳐 시상이 이뤄졌고 시상에는 김대희, 송재림 홍보대사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후원자가 쓴 편지와 선물이 어떻게 후원아동에게 전달되는지 이수경 홍보대사가 직접 진행한 '배달의 플랜' 활동 영상도 상영돼 주목 받았으며 다니엘 헤니, 안재홍, 심혜진, 전미선 등 여러 홍보대사들이 영상으로 전해 온 축하 메시지도 소개되어 더욱 풍성한 플랜코리아 후원자 어워드가 되었습니다.









사진: 황진환 후원자

모든 후원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조금 더 특별한 사연으로 후원자 어워드에서
수상하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플랜과 함께 걸어요, The좋은동행상

"앞으로 함께할
시간을 더욱 기대합니다."

플랜코리아가 가는 곳마다 멋진 목소리로 나눔을 실천하는 오상진 홍보대사는 2009년부터 플랜코리아와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좋은 파트너로 활동 중입니다. 올해 후원자 어워드도 오상진 홍보대사 덕분에 훨씬 빛났습니다.

더욱 많은 아이들을 위해, The좋은후원상

"7명의 아이들 덕분에
상까지 받아 감사하네요."

장윤정 후원자님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7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생명을 거두기도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무려 일곱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의 삶을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후원아동에게 힘과 용기를, The좋은교류상

"예아부 카마라.
네 덕분에 받았다."

홍성근 후원자님은 2011년부터 총 175통의 편지를 후원아동에게 잊지 않고 보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아이에게 힘과 용기를 전해주셔서 오늘도 후원아동은 행복한 하루를 맞이합니다.

더욱 따뜻한 세상을, The좋은스토리상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주시고
감사했습니다."

김준현 후원자님은 동시집을 출간해 후원아동과 플랜에 보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리아 난민 지원 및 출생등록 캠페인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재능기부로 멋진 동시를 선물하고 고향과 집을 잃은 이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참여해주신 천사 같은 후원자님의 등에는 아마도 날개가 숨어있는 건 아닐까 늘 생각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플랜코리아에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과 사랑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후원자 분들과 함께 심은 나눔의 씨앗이 전 세계 곳곳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의 결실을 맺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구촌 아이들이 소외 당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플랜코리아가 열심히 노력하며 후원자 분들과 꾸준히 소통해나가겠습니다.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후원하는, The좋은가족상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분 좋은 추억이
하나 더 생겼네요."

배성철 후원자님은 어머니, 딸, 사위, 손녀 등 가족 7명이 동시에 플랜코리아를 통해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또 다른 가족의 삶을 응원하는 후원자님으로부터 통해 나눔의 소통을 배웁니다.

사랑받은 만큼 다시 나누는, The좋은인연상

"양친회에서 받은
잊지 못할 어머니의 사랑을
플랜을 통해 전하겠습니다"

1962년부터 양친회를 통해 도움을 받았던 정미애 후원자님은 어려운 시절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개발도상국 아이를 꾸준히 지원하며 다시 그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 아름다운 후원으로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24년째 한결 같은 마음으로, The후아유상

"플랜과 이렇게 또
좋은 추억이
쌓여가네요."

1993년부터 후원을 시작한 권현상 후원자님은 플랜코리아의 원년 후원자입니다. 24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든든하게 협력하는, The좋은기업상

"언제나 좋은 파트너인
플랜에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삼성엔지니어링은 2012년부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급여 공제를 바탕으로 '키다리 아저씨'라는 아동 결연 캠페인에 참여하며 41개국 1,200여 명의 아동을 후원 중입니다.

든든하게 협력하는, The좋은기업상

"앞으로 플랜과 더 많이
협업할 일들이 더욱
기대됩니다."

현대건설은 2013년부터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우간다, 베트남 등 개도국에서 교육, 직업훈련, 대학생 봉사단 해피무브 진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눠요, 자원 봉사상

"나의 조그마한 관심이
따뜻한 세상이 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권현정 봉사자와 송예진 봉사자는 플랜코리아 사무실과 집에서 두 손 두 발 걷어붙이고 직접 나서며 꾸준히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귀한 시간을 내어 플랜에 도움을 주시는 봉사자님들 덕분에 플랜코리아가 더 힘을 내어 전진합니다.











우리가 함께한 순간들을 꼭 기억할게

플랜코리아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소속사 배우들과 처음으로 함께하게 된 국가는 베트남이었다.
베트남의 대표적인 빈민지역인 타이응우옌 지역은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실조 비율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곳이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유치원 공사와 놀이터 청소를 돕고 아이들과 다양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비포장도로 위를 한참이나 달리고 나서야 이제 막 건물의 형태를 띠게 된 공사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간단한 설명을 듣고 바로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다. 공사 일은 쉽지 않았고 땀샘이 고장 났나 싶을 정도로 땀이 계속 흘렀다. 진행속도 또한 마음처럼 빨리 되지 않아 답답했다. 한 공간이 탄생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처음 경험했다.

이곳은 랑메 ECCD 센터로 내년쯤엔 어린이들이 다니게 될 유치원이자 마을 사람들의 중요한 소통 장소로 이용될 곳이라고 했다. 내가 머문 기간은 이틀뿐이었지만, 낯설었던 이곳은 어느새 나에게 소중한 곳이 되었다. '이곳에서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놀이터에서 뛰어놀겠지', '이 벽에는 어떤 예쁜 그림들이 그려질까' 등의 상상만으로도 두근거렸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완성된 모습을 꼭 보고 싶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쏨렁 ECCD 센터에도 방문했다. 아이들이 나를 어려워하진 않을까 조금 조심스러웠지만, 아이들은 해맑은 표정을 지으며 나에게 스스럼없이 다가와 주었다. 비록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의 눈빛을 보며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 "볼에 스티커를 붙여줄까?"하고 내 볼을 가리키며 말했더니, 아이들이 알아들었다는 듯이 웃으며 내 볼에 뽀뽀를 했다. 언어장벽이 이토록 귀여운 실수를 낳을 줄이야! 나를 바라보며 반짝반짝 빛나던 아이들의 눈동자를 잊을 수 없다.

모든 아이들이 순수했고 모든 순간들이 사랑스러웠다. 웃고 놀다 보니 어느새 가장 신나있던 사람은 나였던 것 같다. 아이들의 순수함에서 비롯되는 힘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짧은 시간 속에서 어떠한 걱정과 고민도 없이 같이 웃게 해준 아이들의 어마어마한 힘과 에너지가 신기할 정도였다. "또 언제 와요?"라는 질문에 당장 쉽게 대답할 수는 없었지만 이 질문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이 분명했기에 정말 고마웠다.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며 잠시 불편했던 마음도 모두 사라졌다. 앞으로 지구촌의 모든 아이들이 웃을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 내가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함께 할 수 있다면 나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다.

아이들의 웃음을 기억하고,
이날의 우리를 기억해야지.
앞으로 플랜코리아와 함께 아이들을 만날
또 다른 순간들이 무척 기대된다.

글 이정민 홍보대사
사진 스튜디오조단 원상희













지구촌 아동 돕기
플랜 아트마켓

청명한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빛났던 지난 10월,
에버랜드 장미원 일대에서 지구촌 아이들을 위한 '플랜 아트마켓'이 개최됐다.
플랜코리아와 에버랜드, 라보라토리오브아트의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지구촌 아동들에게 안전한 놀이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날 열린 플랜 아트마켓에서는 휴일을 맞아 에버랜드를 찾은 관람객들이 함께 보고 즐기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눔까지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더욱 눈길을 끌었다. 가을 나들이 삼아 에버랜드에 방문했다가 마켓 현장에 들른 친구, 연인, 가족 단위의 많은 사람들은 즐겁게 행사에 참여하며 따뜻한 마음들을 나눴다.

메인 이벤트인 '수익금이 기부되는 플리마켓'에서는 30여팀의 셀러들이 감각적인 수공예 작품과 일러스트가 가미된 여러 소품들을 들고 나와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판매를 통한 수익금은 지구촌 아동들의 놀이시설 건립 지원 사업에 쓰일 계획이다.

플리마켓에 이어 여러 부대행사도 진행되었다. 나눔 체험존에서는 지구촌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드림캐처 만들기, 개도국 여자 아이들에게 희망메시지 적기, 나눔 타투 붙이고 SNS로 응원하기 등이 열렸다. 특히 드림캐처 만들기 부스는 아이들과 함께 찾은 가족 방문객들로 북적이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플리마켓에서 물품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리워드를 제공하는 스탬프 랠리 프로그램도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며 마켓의 훈훈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플랜코리아는 에버랜드와 함께 가뭄이 심한 아프리카 지역에 우물을 건립하고, 베트남 꽝빈 지역과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 등 개발도상국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놀이시설을 지원하는 등 지구촌 개도국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나눔 실천의 성과로 이번 플랜 아트마켓에서는 지난 5월에 열린 플랜 아트마켓 수익금으로 건립된 캄보디아 놀이시설 사업 현황 사진도 전시되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단순히 수익금만 모집하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결과까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했다. 이번에 전달되는 후원금 역시 개도국 아이들 놀이시설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캄보디아 아이들이 마실 깨끗한 물을 선물합니다

안재홍 홍보대사가 플랜코리아와 함께 캄보디아를 찾았다.
지난 7월 플랜코리아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한
식수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던 만큼 드라마와
영화 촬영으로 한창 바쁜 나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약속을 지켰다.
캄보디아에 도착한 그는 가장 먼저
일대일 결연을 맺고 있는 후원아동을 만나러 갔다.
한국에서부터 미리 챙겨간 선물을 들고
릴리가 사는 마을로 향하는 내내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글 플랜코리아 홍보팀
사진 스튜디오조단 원상희











여섯살 소녀 릴리는 수줍음이 많았다. 처음 보는 손님들 앞에서 부끄러웠던지 자꾸만 엄마 뒤로 숨어버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준비한 선물을 하나씩 꺼내 친절하게 설명해주자 릴리의 눈빛이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여자아이의 감성에 맞춰 심사 숙고해서 골랐던 분홍색 책가방을 보면서는 금새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자신의 몸집만한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들어갈 꿈에 부푼 모습이 무척 귀여웠다. 두 사람은 즉석사진을 찍어 나누어 가지면서 소중한 만남을 더 오래 기억하기로 했다.

안재홍 홍보대사는 플랜코리아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릴리와 같은 아이들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수를 마시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전했었다. 실제 캄보디아의 많은 지역에는 수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원이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수많은 어린이들이 수인성 질병에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랜은 학교와 마을 곳곳에 우물과 식수타워를 마련하고 있으며, 계획단계에서부터 마을 식수 관리 위원회를 설립하여 시설이 지속적으로 잘 관리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릴리와의 반가운 만남에 이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식수 지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릴리가 다니게 될 초등학교에 들러 플랜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식수타워를 살펴 보았다. 학교에 설치된 식수타워 하나로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은 물론, 마을 주민들까지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간 비누와 칫솔, 치약을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며 기초적인 위생교육을 진행했다. 마을에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웅덩이에서 얻는 물 대신 꼭 깨끗한 식수를 마시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짧은 시간 속에서 아이들과 스스럼없이 친해지고 운동장에서 다같이 뒤엉켜 노는 그의 모습이 무척이나 신나 보였다.

캄보디아 아이들이 깨끗한 식수를 마시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같은 주의 한 중등학교에 식수타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고, 식수타워가 설치될 장소를 꼼꼼히 둘러보며 혹시 다른 도움이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첫 방문부터 많은 숙제를 가지고 돌아가야 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모두의 작은 도움이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지 생생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년 이 즈음, 새로운 학교에 세워질 식수타워와 그 아래에서 울려 퍼질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상상하니 벌써부터 가슴 벅차게 감동스럽다.

당연하게만 여겼던 물 한잔이
더욱 특별하고 귀하게 주어지는 곳.
이제는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통해
매일 건강하고 행복한 꿈을 꿀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연말연시 이벤트

후원아동에게 보내는 꾸러미

꾸러미를 받은 아이들의 마음에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꾸러미 이벤트가 벌써 3회를 맞이합니다.
첫 회에는 51개국에 500명의 후원아동에게,
작년에는 50개국에 478명의 아동에게 꾸러미가 전달되었습니다.
꾸러미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후원자님들 덕분에 많은 후원아동들이 기뻐했습니다.
후원아동의 마음에 행복을 선물하는 올해의 꾸러미는 더욱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어떤 꾸러미가 있나요?



보건꾸러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건꾸러미
라이프 스트로(필터가 부착된 스트로) + 종이비누 + 연말연시카드



독서꾸러미
그림영어책을 통해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울 수 있는 독서꾸러미
영어와 그림이 함께 있는 책 + 스티커 + 지퍼파일 + 연말연시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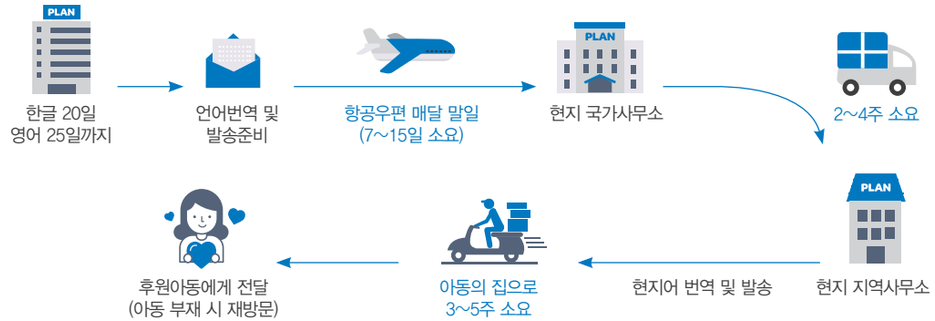
학용품꾸러미
유치원부터 중고생까지 모두에게 유용한 학용품 꾸러미
공책 + 문구세트 + 스티커 + 가방(에코백) + 지퍼파일 + 연말연시카드



색칠공부꾸러미
미술놀이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색칠공부 꾸러미
컬러링북 + 색연필 + 입체퍼즐 + 한지색종이 + 지퍼파일 + 연말연시카드

꾸러미 실물은 더좋은가게 사이트 www.planshop.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2018년 1월 14일까지 | **참여방법:** 온라인 및 전화구매

꾸러미/편지 전달 과정



Q 후원아동이 꾸러미를 받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주로 수도에 위치한 국가사무소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지만 지역사무소의 경우 교통, 도로 등이 열악하여 전달하는데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동 가정까지의 접근성은 더욱 좋지 않아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Q 선물을 보냈는데 답장이 오지 않아 섭섭해요.

플랜은 후원아동에게 후원자님께 답장을 쓰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방문 시 아동의 부재 또는 아동이 편지 쓰는 것을 어려워 할 경우에는 아동보호정책에 따라 강요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꾸러미를 통해 후원아동에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구매 및 문의 | 더좋은가게 www.planshop.co.kr 02-516-5107

추운 겨울, 당신의 사랑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주세요

플랜코리아는 60여년 전 전쟁 고아들을 도운 첫 마음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전합니다.



아직도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나요?

중고등학교는 여전히 유상 급식입니다.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고등학생의 급식비는 15만 원이 넘어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은 밥을 굶어야 합니다. 끼니를 챙겨줄 부모님은 일터에 계시거나, 몸이 편찮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밥을 굶는 아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방학이 오는 것이 싫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전기장판만 있어도 따뜻하지 않나요?

전기장판을 선물해도, 너무 빨리 철이 든 아이들은 전기세 걱정에 포장조차 뜯지 않은 새 제품으로 두기도 합니다. 저소득 가정은 소득의 15%(동절기 기준)를 난방비로 사용합니다. 평범한 가정보다 4배나 높은 숫자지만 집에는 온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겨울에는 없던 난방비 지출이 늘어납니다. 전기장판이 따뜻하다는 것을 알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이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고요?

100점짜리 시험지를 두고 아이의 자랑과 부모님의 칭찬이 오고갑니다. 내 자식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아이의 '착한 욕심'이 자라나는 순간입니다. 보호자의 부재, 질병, 열악한 근로 환경, 낮은 학력 등으로 대다수의 저소득 가정은 '착한 욕심'을 느껴볼 기회가 없습니다. 교육은 단지 한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걸까요? 교육이 한 가족의 미래를 바꾸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굶는다는 것은 매일 집에 혼자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에게 집이 춥다는 것은 부모님이 실직했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에게 빵점 짜리 시험지는 숙제를 봐줄 부모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주세요.

♥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치료비 걱정 없는 **내일을 선물**합니다.

♥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들에게 날개가 되어줄 **장학금을 선물**합니다.

♥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선물**합니다.

♥ **방학이면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선물**합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겨울 선물하기

아이가 아프면 가족이 모두 아픕니다

중증 질환을 앓는
만 0세~15세 어린이의
병원비 총액

6조 3,937억 원

그 중
2조 5,113억 원 상당이
환자와 가족이
부담해야 할 부분

그조차도 급여보다
비급여 본인부담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상황

–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발표한 2014년 총 병원비 및 환자본인부담금 현황 中

아이가 큰 병을 진단 받으면 그 가족은 모두 난민이 됩니다. 엄마는 병원에서 아이를 돌보다가도 틈틈이 일감을 찾아야 하고, 아빠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잠시도 쉬지 못한 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합니다. 그사이 외롭게 남겨진 다른 자녀는 아픈 형제를 위해 '기다리고 참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플랜코리아는 환아와 보호자, 그리고 형제자매까지 함께 돌보기 위해 노력합니다. 환아와 보호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환아의 형제자매를 위한 학습보조와 방과 후 보호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아동복지전문기관과 함께 협력합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지켜줄게."

새벽 4시 30분, 어두운 병실.
엄마는 위루관 수술을 마친 아이의 손을 잡고 인사합니다.
"우리 아들, 엄마 올 때까지 아프지 말고 잘 있어야 해."

엄마는 오늘도,
뇌병변장애 1급 아들을 혼자 두고
공사장으로 나갑니다.

지훈이(가명/5세)는 주사기로 음식물을 넣어주기 위한 관을 연결하는 '위루관 수술'을 했습니다. 뇌병변장애로 몸이 점점 굳어가던 지훈이가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뇌병변장애 1급, 그래서 항상 엄마가 필요한 지훈이를 두고
엄마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사장으로 출근합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인 아빠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섯 살, 9kg 작은 몸으로
몸이 굳어가는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훈이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신경증과 뇌전증으로 매일 같이 경기를 일으켰고,
그때마다 몸은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집처럼 오고 간지 5년. 또래 아이들의 반도 안 되는 작은 몸에는 생명줄과 같은 수많은 주삿바늘이 꽂혀 있습니다. 목도 가눌 수 없이 굳어진 아이의 몸과 사라질 듯 한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엄마는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인 듯 싶습니다.

하루에 한 번, 엄마 목소리에
지훈이가 웃습니다.

지훈이는 세상의 모든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혼자만의 세상 속에서 삽니다.
지훈이를 세상과 이어주는 것은 퇴근 후 인사하는 엄마 목소리입니다.
온종일 무표정한 지훈이가 하루에 한 번, 함박웃음을 보여줍니다.
그 미소에 엄마는 힘겨운 하루를 잊습니다.

외롭게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지훈이가
엄마의 목소리에 더 자주, 더 많이,
더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지훈이와 가족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지훈이 이야기
더보기

학교에서 마음껏 꿈꾸고 싶어요

플랜코리아가 지구촌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알리고 동참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MBC와 좋은친구들'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며 나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MBC와 좋은친구들'은 3년째 지속되고 있는 MBC의 대표 캠페인으로 이번 여정에는
심혜진 홍보대사가 동행하여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실상을 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심혜진 홍보대사와 플랜코리아는 캄보디아를 찾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을 만났다. 학교를 그만두고 조혼해 임신 중이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 쓰레기장에서 일하며 하루 몇백 원을 버는 여자아이, 수상마을에서 열네 명의 형제자매와 젓갈 만드는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아이들의 삶을 직접 마주했다. 비위생적인 환경과 악취로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아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학교 대신 일터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200켤레의 신발과 학용품을 선물하고, 아이들이 아플 때 쉽게 보건소에 들를 수 있도록 간이 응급차를 기증했다. 아이들은 깜짝 선물에 무척 기뻐하며 생기 가득한 얼굴로 연신 웃어 보였다. 어쩌면 아이들의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준 건 선물 때문만이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는 것,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견뎌온 삶을 이해해주었다는 것이 작지만 큰 위로이자 희망이었다.

아이들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심혜진 홍보대사는 직업훈련 학교에도 방문했다. 플랜은 개도국 여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학교를 설립하고 정부와의 협력 하에 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창 공부하며 꿈을 키워야 할 아이들과 학교를 그만둔 젊은 여성들이 양질의 직업훈련을 받고 잃어버린 꿈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바느질, 자동차 수리, 메이크업, 헤어드레싱, 전기기술 등 다채로운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어 적성에 따른 선택도 가능하다.

심혜진 홍보대사는 플랜의 직업훈련학교를 졸업한 뒤 자신의 꿈을 찾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따뜻한 격려를 보냈다. 메이크업 기술을 배워 미용실을 차리게 된 열아홉 살 소티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틈틈이 여러 헤어스타일과 미용관련 기술들을 꾸준히 공부하는 열정 있는 소녀이다. 찬츄 역시 교육을 수료한 뒤 집 한 켠에 재봉틀을 구비하고 바느질 가게를 열어 캄보디아 전통 의상과 주민들이 수선을 요청하는 소일거리들 받으면서 스스로 원하는 일을 하며 생계활동까지 이어나가고 있었다.

심혜진 홍보대사와 플랜코리아의 캄보디아 봉사활동기는
12월 1일 'MBC와 좋은친구들'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되면서 더욱 훈훈한 귀감이 되었다.
마음으로만 응원해오며 실천의 시작을 망설이던 시청자들의 격려를 받으며
모두가 더 용기 내어 나눔에 참여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꿈꾸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포기를 먼저 배운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우리의 관심은 소중한 씨앗이 되어줄 것이다.
언젠가 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세상의 열매를
맺어주기를 바라본다.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생생한 현장을 확인하며 나눔의 기쁨이 배가 되는
'배달의 플랜' 캠페인에 보내주신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시즌 2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배달의 플랜

이번 배달지는 인도양의 진주로 불리는 아름다운 섬나라 '스리랑카'입니다.

한국에서부터 8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도착한 반다라나이케 공항. 후덥지근한 공기가 스리랑카에 도착했음을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수도 콜롬보에서 아동이 살고 있는 우바 지역까지 다시 7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동하는 긴 여정 끝에 안자영, 이득규 후원자님의 후원아동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안자영 후원자님의 후원아동 듈락쉬를 만나기 위해 아동이 다니는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사춘기에 막 접어들 나이의 듈락쉬는 시원한 미소가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수줍어하면서도 후원자님께 감사의 영상 메시지를 꼭 남기겠다고 용기 내던 모습이 무척 대견하고 기특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듈락쉬가 수업에 가야 했기 때문에 짧은 만남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음 아동을 만나러 이동하였습니다.

이득규 후원자님의 깜짝 선물을 받을 스리랑카의 두 번째 후원아동 네스미도 만났습니다. 네스미의 집은 차로 3시간 동안 논길을 한참 지나야 나오는 외진 지역에 있었습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던 네스미는 선물을 받고 이내 환한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머리띠를 쓰고 사진을 찍으며 손으로 V자를 그리는 모습이 여느 또래 여자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귀여웠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가 하나씩 열어보면서 어머니께 자랑하던 네스미는 언젠가 후원자님을 직접 꼭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후원자님과 함께 만드는 감동은 계속됩니다.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배달의 플랜'은 플랜코리아와 함께 해주고 계신 전국의 후원자님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따금 편지로만 주고받던 마음을 영상 편지와 선물로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고,
그 순간 환하게 웃으며 행복한 표정으로 화답하는 후원아동의 모습을 더 큰 감동으로 확인해보세요.
어떤 마음이라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선물일지라도 소중하고 귀하게 전하겠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 할 '배달의 플랜'은 계속됩니다.



이제 아름다운
홀로서기를 시작합니다.

캄보디아 트봉크뭄에 **찾아온 변화**

2004년, 플랜인터내셔널은 트봉크뭄(구 캄퐁참) 지역에서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지난 13년간 8,000명의 후원아동들을 비롯하여 가족 및 주민들을 위한 아동권리 옹호, 환경 및 위생 개선, 소득 증대 등의 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을 이뤘습니다. 그 변화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후원자님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트봉크뭄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구: **876,000명** 사업장: **12개주, 64개 마을** 후원아동: **8,000명**

· 식수 및 위생

깨끗한 물을 사용하게 된 주민의 비율
45% ▶ 87.5%

화장실을 갖춘 가구의 비율
14.37% ▶ 50%

정수된 안전한 물을 마시는 주민의 비율
15% ▶ 46.3%

식수시설과 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손 씻기, 개인위생 관리 교육을 뒷받침하여 지역의 위생 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 교육

3-6세 아동 유치원 등록률
8.61% ▶57.10%

중학교 진학률
27% ▶ 46.3%

수도시설, 화장실 등을 갖춘 18개의 초/중등학교를 건축해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장학금 지원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학습 모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 보건

산모 사망률
신생아10만 명 당 453명 ▶ 신생아10만 명 당 170명

의료센터에서 정기검진을 받는 임산부의 비율
51% ▶ 92.3%

교육받은 조산사에 의한 출산 비율
5% ▶ 92.3%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의료센터에서 산전 건강 검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의약품 및 예방접종, 영양식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 출산 관습이 바뀌고 산모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아동권리옹호

아동보호 네트워크 참여율
0% ▶ 100%

아동 권리를 인식하는 주민의 비율
1% ▶ 90%

12개 주에서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아동 보호 모임이 운영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아동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아동의 권리에 대해 배우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배우고 있습니다.

· 소득창출

청년을 대상으로 재단 기술, 오토바이/자동차 엔진 수리, 휴대폰 조립, 미용 등의 다양한 직업교육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청년들은 여러 기술을 습득하여 직업을 얻고 자신의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직업교육 후 한달 소득 증대
90$ ▶ 160$

창업을 통해 하루 수입증가
7.5$ ▶ 25$

〈15~25세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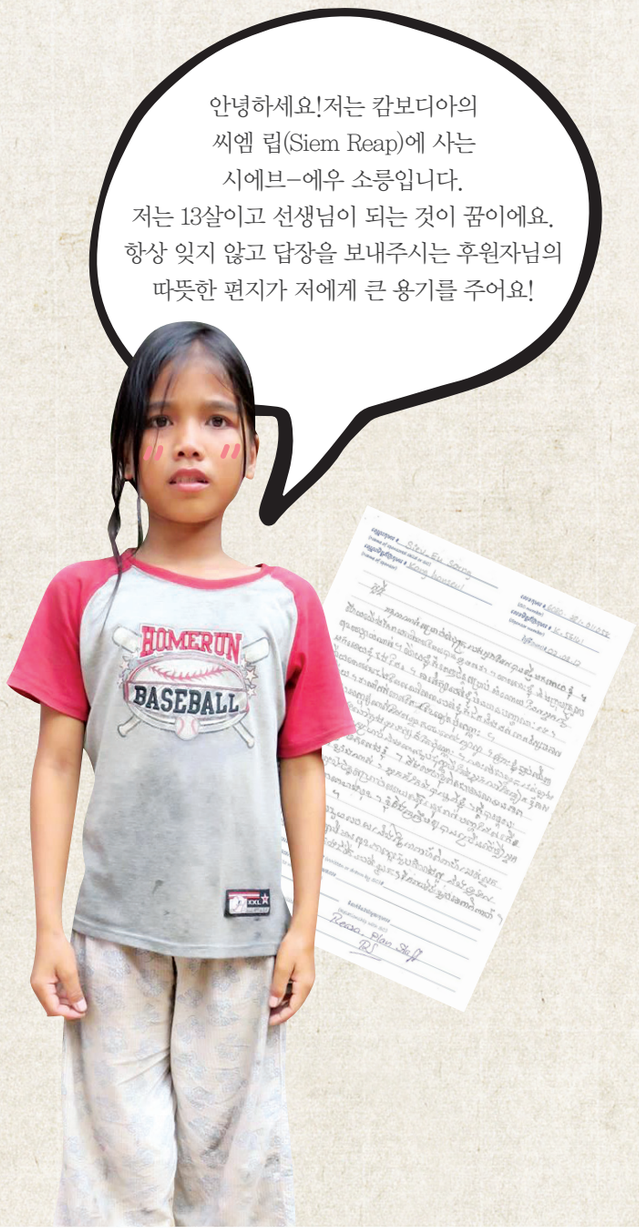
트봉크뭄 지역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밝은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모두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 덕분입니다. 플랜인터내셔널은 트봉크뭄 지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더 열악한 지역으로 이동해 스퉁트렝(Stung Trang) 지역에서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더 많은 곳에서 모든 아이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키워 훌륭히 자립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선된 지역의 모습과 성과를 앞으로도 후원자님과 꾸준히 공유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더욱 따뜻한 나눔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후원자님의 많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띵동, '편지' 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캄보디아에 사는 후원아동 시에브-에우 소릉이 쓴 편지를 소개합니다. 어느덧 6년 째 편지로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는 모습이 참 편안하고 따뜻해 보여요. 소릉이에게 후원자님이 얼마나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존재인지 깊이 느껴집니다.

후원자님의 편지는 후원아동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아동에게 큰 사랑을 보내주시는
모든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소릉이의 편지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편지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과 저는 잘 있어요.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공책이 참 좋아요.
공부도 잘 하고 있고요.
한 달 후부터는 방학이 시작되어요.
후원자님께서 피아노를 치실 줄 아신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텔레비전에서 어떤 사람이 연주하는 걸 봤는데
멋졌거든요.

후원자님께서 바쁘게 지내며 잘 쉬지도 못하시고
남편을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없으신데
그래도 잊지 않고 제게 편지를 써주셔서 무척 기뻐요.
저는 그런 후원자님이 무척 자랑스러워요!
후원자님께서는 항상 제 걱정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후원자님의 마음은 제가 부딪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용기를 준답니다.

후원자님과 후원자님의 가족을 위하여
될 수 있으면 많이 웃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후원자님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후원자님과 남편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소릉 드림

후원자님의 답장

안녕? 잘지내고 있니?
방학이라고 하더니 방학 동안 어떻게 지냈니!
동생들은 잘 크고 있니? 너의 가족들은 잘 지내는지 궁금하구나.

요즘 한국은 내년에 개최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축제를 준비 중이어서 여러 곳에서 축제준비를 하고 있어.
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이 더운 나라에 살고 있는 너에게는 생소할 것 같지만,
4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곧 겨울이 오는 2월에 시작해.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겨울스포츠여서 얼음이나 눈 위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게 된단다.
언젠가는 너도 겨울스포츠에 대해서 알고 경기를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흥미가 생겼으면 해.

나는 올해 너무 행복한 일이 많아서 너도 함께 행복한 한 해를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
결혼을 해서 가족도 생기고, 또 지금은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고 있단다!
너에게도 꼭 알려주고 싶었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준다는 너의 말이 너무 기뻐서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지만 너를 위해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
네가 항상 웃으며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로 자랐으면 해서
나 또한 더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한단다.
앞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사진을 보니 더더욱 보고 싶구나. 올 한 해는 행복한 한 해로 마무리 잘하고 또 편지할게 ^^

후원아동에게 편지 보내는 방법

letter@plankorea.or.kr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231 H스퀘어 S동 912호 플랜코리아 (우:13494)
* 한글 편지 20일, 영어 편지 25일까지 도착 시 당월 말일 발송합니다.

*편지 선정 시 후원자님께 연락을 드려 공개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편지가 소개된 후원자님과 후원아동에게는 소정의 The좋은가게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017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17년 한해도 플랜코리아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주신 후원자님께 감사 드립니다

01 개인정보 등록 확인

-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등록 및 확인:** 플랜코리아 **홈페이지 ▶ 마이플랜** / 전화상담: **1544-3222(내선:313,314,317)**
  이메일: **plan_a@plankorea.or.kr** / 카카오톡:**@플랜코리아**

※ 2017년 12월 29일(금)까지 정확한 개인정보 등록 부탁 드립니다.

정보등록 마감일 이후 등록된 정보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경우 플랜코리아 홈페이지에서만 조회/출력 가능합니다.

02 발급 방법

- **홈페이지 ▶ 마이플랜** : 2018년 1월 4일(목)부터 조회 및 출력 가능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 2018년 1월 중순 이후 확인 가능

※ 2017년 납입된 후원금에 한하여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03 기부금유형 및 공제한도

-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
- **기부금 세액공제율:** 2천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15%, 2천만 원 초과분은 기부금의 30% 적용

후원금을 납부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납부할 수 있나요?

- **당월 후원금 :** 정기출금일에 출금되지 않은 경우 해당월 내 재 출금 시도됩니다.
- **지연된 전월 후원금:** CMS: 5일, 10일, 15일, 25일, 말일 / 신용카드: 말일, 익월 10일에 재 출금 시도됩니다.

※ 출금일 전 SMS로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지연된 후원금 납부를 원치 않거나 합산하여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플랜코리아 사무실(1544-3222)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후원금 관련 문의

전화: 1544-3222 (내선: 313,314,317) 이메일: plan_a@plankorea.or.kr 카카오톡: @플랜코리아

Enjoy Plan





'또 하나의 나, 우리'를 읽는
또 하나의 재미

틀린그림찾기

틀린 그림(5개)을 **눈에 띄게 표시**한 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찰칵!**

참여방법 1

플랜코리아 페이스북 Enjoy Plan 이벤트 페이지에 후원자 번호와 함께 **사진 업로드!**

or

참여방법 2

카카오톡에서 **'플랜코리아'**를 **친구 추가**한 후, 후원자 번호와 함께 **사진 전송!**

QR코드를 찍으면
이벤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정답 및 당첨자는 2018년
봄호 소식지에 게재됩니다.

지난 호 정답▶

가을호 이벤트 당첨자

여재구(울산) **손아름**(부산) **윤진수**(안동)
임성혜(경산) **박혜민**(성남)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The좋은가게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플랜코리아 소식

플랜코리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필리핀 동사마르 세이프스쿨 완공

반복되는 자연 재해로 변변한 교육시설이 없던 필리핀 동사마르에 안전하게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이프스쿨이 문을 열었다. 플랜코리아가 지난 1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구호개발사업을 진행해온 결과다. 필리핀 동사마르 세이프스쿨을 통해 이 지역의 아이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며 잠재력을 키우고, 갑작스러운 재난의 상황에도 안전하게 대비하여 개인의 신변과 위생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음악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나눔 Grand Mint Festival 2017

10월 21, 22일 이틀 간 진행된 그랜드민트페스티벌에 플랜코리아가 나눔 부스로 참여했다. 플랜코리아는 부스를 찾은 관객들에게 플랜코리아를 소개하고, 봉사 활동 사진전, 나눔 뽑기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해 이목을 끌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로 6년째 그랜드민트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있는 플랜코리아는 'Because I am a Girl'을 비롯한 플랜의 캠페인을 열정적으로 알리며 전 세계 아동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경북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50명 에버랜드에 초청

플랜코리아가 에버랜드와 함께 문화 소외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주세요' 캠페인을 진행했다. 먼 거리와 예산 부족으로 놀이공원에 방문할 수 없었던 아이들은 루돌프 머리띠를 하고 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여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에버랜드는 플랜코리아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노후한 장판 교체, 아동 성장 발달에 맞는 책걸상 제공 등 국내아동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플랜코리아의 새로운 가족 심혜진 홍보대사 위촉

배우 심혜진이 플랜코리아의 새로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위촉식에 앞서 심혜진은 플랜코리아와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을 만나 격려하고, 플랜 직업훈련학교에서 자립을 위해 기술을 배우고 있는 소녀들을 응원하는 시간을 보내고 왔다. 앞으로도 심혜진은 플랜코리아를 통해 여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빈곤, 질병, 노동 등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 아동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삼성중공업과 인도네시아 세이프스쿨 사업 착수

삼성중공업이 빈곤국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위험한 상황대비를 교육하는 '세이프스쿨' 사업을 착수했다. 이에 플랜코리아와 삼성중공업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건물 보강, 학교 내 설비와 기자재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달 진행된 기공식에서는 기념 식수와 세이프스쿨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재활용품 화분 제작, 식물을 심어 벽에 거는 녹화 사업 등의 '도시 정원' 조성 활동도 진행 되었다.



코이카 국제질병퇴치기금 사업 HIV 모자수직감염 예방 캠페인 진행

플랜코리아가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국제질병퇴치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HIV 모자수직감염 예방과 남성들의 HIV 검사 참여를 권장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HIV 관련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지역보건요원의 지도를 받은 중고생들의 연극과 메시지전달 행진을 통해 산전검진 및 HIV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HIV 모자수직감염 예방 활동에 대한 주요 메시지를 전달했다.



플랜지구촌 소식

세계 장애인의 날, 'Let me Decide and Thrive' 보고서 발간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플랜은 장애를 지닌 소녀들이 직면한 불평등에 대한 보고서 'Let me Decide and Thrive'를 발간했다. UN 장애인인권 특별 조사위원과 함께 만든 이 보고서는 장애를 겪는 여자아이들이 직면한 다양한 차별에 대해 소개하고, 이들 중 대부분이 자신의 권리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랜은 보고서를 통해 그들이 더 이상 성별, 장애, 나이 등으로 차별 받지 않도록 전 세계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방글라데시 난민캠프에서 로힝야족 긴급구호

플랜이 미얀마의 극심한 소수민족간 분쟁사태 속에서 정부의 탄압과 무력 충돌을 피해 국경을 넘은 로힝야족 긴급구호에 나섰다. 현재 방글라데시로 옮겨간 로힝야족은 진흙투성이의 산비탈에 위태로운 난민촌을 형성하고 비위생적인 환경과 영양실조 및 각종 질병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플랜은 160개 이상의 위생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재난상황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7 UN 기후변화 협약 총회 청소년 대표 참석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독일 본에서 개최된 UN 기후변화 당사국 협약 총회에 플랜 호주, 플랜 미얀마와 플랜 본부를 통해 선발된 5명의 청소년 대표가 참석했다. 그들은 전 세계 지도자들이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여 아이들이 보다 유연하게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랜의 기후변화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지역 사회와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가르치고, 기후가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과 문제들을 알아나가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미셸 오바마, 여자아이에 대해 외치다

미국의 전 영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11월 28일 캐나다 라이손 대학을 방문하여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플랜인터내셔널 캐나다와 캐나다 경제 클럽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여자아이들의 양성평등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미셸 오바마는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 여러 난관들을 극복하며 변호사로 성공하게 된 도전기를 들려주고, 소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동등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플랜 네팔 줌라사무소 오픈 교육 지원 중심 프로그램 실시

네팔의 줌라지역(MID WESTERN HILLS)에 새로운 플랜 네팔 사무소가 열렸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800km 멀리 떨어져있는 줌라지역은 네팔의 5개 주 중 가장 큰 지역이다. 지역적으로 접근이 어려운데다가 겨울이 되면 극심한 추위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이 곳에는 현재 11만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그 중 41%가 아이들이다. 플랜 네팔은 장애아동을 위한 호스텔과 보건소를 건축 중이며, 여자아이들 교육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Say No to Child Marriage' 탄자니아 조혼반대 캠페인

탄자니아에서는 법적으로 결혼 가능한 나이가 남자아이는 18살, 여자 아이는 14살이다. 조혼을 경험한 여자 아이들은 임신과 노동으로 시달리며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가정 폭력과 성폭력을 강요당하며 불우한 환경으로 내몰리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플랜 영국과 플랜 탄자니아는 여자아이들도 남자아이들과 동일한 나이인 18세부터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탄자니아의 결혼법 개정을 요구하며 청소년들과 함께 조혼반대 캠페인을 펼쳤다.





because I am a Girl · PLAN INTERNATIONAL

소티의 하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열두 살 소티입니다.
저는 8년 째 플랜의 후원을 받고 있어요.

플랜에서 마을에 어린이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우리에게는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참여할 권리,
그리고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저는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수학시간이 가장 즐겁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는 것이 제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커서 다양한 기술에 능숙한 기술자가 꼭 되고 싶어요.

플랜의 후원 아동이 되어 정말 기뻐요.
후원자님, 감사해요!

소티의 하루
영상으로 만나기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후원으로 어린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원신청서

이름: (한글) (영문) □남 □여

연락처: e-mail:

주소:

해외아동결연후원 (월 3만원)

저는 _____명의 아동을 후원하고자 합니다.

희망지역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역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성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아동 □남자어린이 □여자어린이

서신교류언어 □한국어 □영어

특별정기후원 (월 만원)

지원분야 □해외사업 □국내사업

후원금결제방법

□ **은행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따로 연락을 드려 세부 내용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19호)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상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며, 회원등록, 소식제공, 연말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14세 미만 아동일 경우(아동 개인정보 수집 보호자 동의) □ **동의함**

관계 법정대리인 (서명)

후원신청서 작성 후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ID 플랜코리아로 보내주세요.

후원문의 1544-3222 kno@plankorea.or.kr www.plankorea.or.kr

The좋은가게

New Item

입체퍼즐

6가지 종류의 입체퍼즐이 출시되었습니다.
퍼즐마다 숫자가 적혀져 있어 만들기 쉽습니다.



· 종류: 핑크 궁전, 런던브릿지, 해적선, 로켓(우주선), 포클레인, 카페

Event

후원아동의 마음에 행복을 선물하는 연말연시 꾸러미 이벤트

후원자님의 관심이 후원아동을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꾸러미를 통해 후원 아동에게
사랑을 전해보세요!



보건꾸러미 독서꾸러미 학용품꾸러미 색칠공부꾸러미

· 기간: 2018년 1월 14일까지

· 구매 방법: 온라인 및 전화구매 가능

후원아동선물은 국제운송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후원아동을 위한 선물, The좋은가게에서 구매해보세요.

더좋은가게 판매 수익금은 플랜인터내셔널을 통해 개발도상국 아동들의
환경개선과 교육 및 보건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지퍼파일	세계지도	한복카드	포스트잇	카드지갑	퍼즐카드
4,500원	5,000원	5,000원	3,000원	1,000원	1,000원

더좋은가게는 단체, 학교, 기업과 함께 협력상품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The좋은가게 www.planshop.co.kr 02.516.5107

후원문의 1544-3222
www.plankorea.or.kr

PLAN INTERNATIONAL
지구촌 아이들의 꿈
플랜코리아